

#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김미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배은경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겸무연구원

목차

- 1 서론
- 2 이론적 검토
  - 2.1 돌봄의 정의와 페미니스트 돌봄 이론
  - 2.2 돌봄 관계와 돌봄의 공동체
- 3 고립된 돌봄과 공동체로의 진입
  - 3.1 고립된 돌봄자의 자기억압과 돌봄의 왜곡
  - 3.2 손을 내밀어 고립을 깨어 준 공동체의 개인들
- 4 돌봄의 공동체
  - 4.1 이상한 나라의 응산
  - 4.2 괜찮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병원’
- 5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방영된 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형상화된 돌봄의 양상을 검토하여, 가족과 젠더를 넘어선 돌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찾아보는 것이다. 돌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설적인 형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의 돌봄 제공이 정지되고 가족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며 돌봄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이 모든 돌봄 위기를 오롯이 여성들의 자기착취적 초과노동으로 감당하며 미봉해 왔다. 이 글은 이제야 겨우 ‘필수노동’으로 불리기 시작한 돌봄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정상가족’과 돌봄 책임의 젠더화된 분배를 당연시하고 돌봄자와 돌봄노동을 비가시화해 온 기존 상상력을 넘어서보고자 하는 시도다.

「동백꽃」과 「사관」은 각각 어린 아이와 성인 장애인이 있는 빈곤 계층의 2인 가족 돌봄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정상가족의 틀 밖에 놓인 가난한 이들이 겪는 돌봄의 위기와 돌봄자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들이 돌봄 관계와 돌봄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로맨스 서사에 담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돌봄 체계가 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돌봄자인 두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투하며 고립으로 내몰리고, 이로 인한 소진으로 온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어 돌봄대상자와의 관계마저 악화시킨다. 극 초반에 주인공들이 겪는 이러한 난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상가족’이 아닌 형태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돌봄 격차의 경험들과 맞물리는데, 두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돌봄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특정한 개인들과, 그 개인들의 초대로 진입한 돌봄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 관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이 난관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을 찾게 된다. 이 글은 두 드라마를 오늘날의 돌봄 담론이 요청하는 탈가족화·탈젠더화·탈시장화된 돌봄의 형태를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로 읽으면서, 다른 한편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가족과 젠더를 넘어선 돌봄의 상상력이 처한 자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문핵심어: 「동백꽃 필 무렵」, 「사이코지만 괜찮아」, 코로나-19 팬데믹, 돌봄윤리, 고립된 돌봄, 돌봄공동체, 공동체, 돌봄.

## 1 서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인 형태로 ‘돌봄’의 중요성을 부상시켰다. 이동과 대면 교류가 감염의 계기로 취급되어 극도로 억제된 가운데, 모두가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삶에 적응해야 했다. 공공기관과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정지되고,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과 보호를 제공할 모든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을 헤쳐 나갈 온갖 책무들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다. 그간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과 가족 내 본인의 무급노동을 조각조각 결합하는 ‘패치워크 노동’을 통해<sup>1</sup> 가족의 돌봄 수요를 충족해 왔던 한국의 대다수 성인 여성들은, 갑작스런 비상 상황을 맞아 압도적인 자기착취적 초과노동과 본인이 구성한 비공식적 돌봄네트워크의 가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대처가 어려운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릴없이 위기를 견뎌야만 했고, 이는 특히 가난한 1인가구나 조손가족처럼 ‘정상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가족형태로 살아 온 많은 사람들에게 혹독한 돌봄 격차의 경험을 부과했다. 이전에는 그럭저럭이라도 유지되던 돌봄 제공의 체계에 브레이크가

---

1 패치워크 노동이란 1980년대 후반에 로라 발보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발보는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족 내 여성의 돌봄을 대체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돌봄 제공이 배타적으로 여성의 책무로 되어 있는 젠더분업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유급노동에 대거 참여하게 된 여성들은 돌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사회의 복잡한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속에서 각종 자원을 선택하고 이어 맞추어, 이를 가족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하면서 가족의 삶을 조직하는 노동을 하게 된다. 발보는 돌봄 서비스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필요를 조각조각 이어 붙이는 이러한 노동을 ‘조각보 이불 누비기(patchwork quilting)’에 비유하며,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이런 노동이 여성에게만 의무로 남아 있는 한 여성의 이중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위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로라 발보, 한국여성개발원 역, 「조각보 이불: 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여성학의 시각」, 앤 쏘우스터 사순 편저,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1989, 37-62쪽.)

걸리자, 그제야 그간 당연시되어 무시되던 돌봄이 인지되고 주목받기 시작했다. ‘돌봄’이 대중적인 언사에 등장하는 어휘가 되면서 (비록 남성이 많이 하는 택배나 운전기사 일보다 후순위로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돌봄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주목받는 담론적 변화가 일어났고,<sup>2</sup> 유급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돌봄’이 새삼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최근 20여 년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누군가를 돌볼 책임에서 완벽하게 면제된 성인 남성 노동자를 이상적 노동자(ideal worker)로 간주하는 일터의 관행이 유지된 채로<sup>3</sup> 여성의 유급노동참여를 증가시켰고, 돌봄의 사회화는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꾼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유급 돌봄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대부분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였고, 민간이 제공하는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역시 깃 경제(Gig Economy)에 포섭된 불안정한 호출노동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나쁜 일자리로서의 유급돌봄노동에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고용되었고, 가족 돌봄은 점점 더 시장화되어 값싸게 외주화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 돌봄의 탈가족화는 진전되었지만, 돌봄의 탈젠더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돌봄이 여전히 여성(만)의 책무로 남아 있는 채로 돌봄의 가치절하와 돌봄 능력의 퇴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돌보는 행위

2 박고은·김고은,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1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83-124쪽.

3 페미니스트 조직이론가들은 현대 자본주의 하의 기업 조직이 겉으로는 젠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남성의 삶과 생애주기, 남성의 몸, 남성의 특성을 ‘이상적인 노동자 상’으로 삼아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Joan Acker, “Hierarchies, Jobs, Bodies: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4(2), 1990, pp.139-158; Joan Williams,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1-276.) 이러한 ‘이상적 노동자 상’은 고도성장기 이래 한국 기업이 요구해 온 ‘회사인간’의 노동규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안숙영,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17, 107-136쪽.)

와 돌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팬데믹은 바로 이런 사회 위로 덮쳐왔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통념을 의심 없이 반영하며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긴 방역 상황에서 언론은, 재택근무와 비대면수업으로 집에 있는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로 추가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나, 집에 갇혀 사회적 욕구 충족이 전면 차단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느라 고통받는 어머니 등의 형상으로 돌봄과 여성 문제를 재현했다.<sup>4</sup> 그러나 팬데믹을 헤쳐 나가기 위해 자기착취적 초과노동을 요구받은 것은 전업주부만이 아니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경기 위축과 돌봄 공백으로 퇴직 혹은 휴직을 경험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남성보다 훨씬 많이 사용했다.<sup>5</sup> 팬데믹으로 급증한 가족 밖에서의 돌봄수요를 감당할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병원과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서비스, 긴급보육 등에서 돌봄 제공을 일선에서 책임진 사람들, 그리고 식당과 회사 등 모든 곳에서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를 위한 온갖 추가노동을 감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시장 위계 최하위의 여성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재난의 여성화, 노동 위기의 여성화, 위험부담의 여성화야말로 팬데믹 시기 돌봄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상상력은 무엇일까?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돌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지속과 사회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돌봄의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부정의한 분배를 그대로 둔 채 돌봄의 제공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오래된 신화와 젠더 규범을 불러와서 위기를 미봉한 현재의 팬데믹 돌봄 체계는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sup>6</sup>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을 여성성과 모성성의 현출

---

4 채혜선, 「아이 휴교, 남편은 재택근무… 코로나 시대에 주부들 ‘삼시세끼 가장 큰 걱정」, 『중앙일보』, 2020.03.05., <<https://news.joins.com/article/23722470>>, 검색일: 2021. 11.14.; 박병일, 「종일 자폐 딸 향해 ‘안돼’…코로나가 만든 돌봄 감옥」, 『SBS8뉴스』, 2020.7.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9678&link=ORI&coop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9678&link=ORI&cooper)>, 검색일: 2021.11.14. 등.

5 전기택·배진경,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이슈브리프』 제 58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1-9쪽.

6 팬데믹이 드러낸 돌봄위기와 지속불가능성에 대해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술로 인간 돌봄자를 보완하고 대체할 플랫폼 개발에 기대를 거는 기술만능주의적

로 이해하며 돌봄자 여성의 희생을 찬양하는 가부장적 상상력과, 돌봄 그 자체를 폄하하고 하층 여성과 이주자를 위한 나쁜 일자리로 외주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상상력을 모두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돌봄의 상상력이다. 이것은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돌봄이라는 실천과, 삶의 구체적 장면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들의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방영된 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하 동백꽃)<sup>7</sup>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이하 사관)<sup>8</sup>를 텍스트로 삼아 가족과 젠더를 넘어서 돌봄의 관계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 두 드라마는 공히 방영 당시 큰 화제가 된 성공작이며,<sup>9</sup> 스릴러의 요소를 차용한 로맨스 드라마로 분류된다.<sup>10</sup>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인 드라마는 아니다. 그러나 두 드라마는 기존 ‘K-드라마’의 로맨스 문법을 성실하게 차용하면서 주인공들의 돌봄 책임과 그 어려움을

---

해법을 추구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컨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마스터플랜으로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돌봄 제공의 사회적 체계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뉴딜’ 분야에 ‘스마트의료 및 돌봄인프라 구축’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 전부를 갈음하였다. (김현미,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제13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 41-77쪽.)

- 7 「동백꽃 필 무렵」(총 20부작), 임상춘 극본, 차영훈 연출, KBS2TV, 2019.09.18.~2019.11.21.
- 8 「사이코지만 괜찮아」(총 16부작), 조용 극본, 박신우 연출, tvN, 2020.06.20.~2020.08.09.
- 9 「동백꽃」은 지상파 드라마들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최종 시청률 23.8%를 기록하고, 주·조연 배우들에게 각종 연기상을 안기며 2019년도를 대표하는 드라마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사관」의 경우 「동백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청률은 낮았으나, 성인 장애인 역할을 맡은 오정세의 연기력과 주연을 맡은 김수현과 서예지의 ‘케미’로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극이 진행될수록 호평을 받았다.
- 10 대부분의 TV 드라마는 공식 홈페이지에 기획 의도를 담은 간략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백꽃」은 “편견에 갇힌 맹수 동백을 깨우는, 촌프와탈 황용식이의 폭격형 로맨스”와 “이들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치정 로맨스”로, 「사관」은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 병동 보호사 강태와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 작가 문영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한 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로 설명되고 홍보되었다.

로맨스를 통해 극복될 주된 위기 혹은 난관으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렇기에 ‘돌봄’은 두 드라마의 서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된다. 이 글은 이에 주목하여 드라마의 로맨스 서사 아래 잠복된 돌봄과 돌봄 관계의 서사를 읽어내고자 한다.

「동백꽃」과 「사괘」을 통해 돌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의 장점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매체적 성격에 기댄 바가 크다. TV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등장인물의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교감의 감정이입의 즐거움을 제공”<sup>11</sup>하기 때문이다. 가령 두 드라마는 극의 초반부에 각각 미혼모와 장애인 가정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입장에 이입하여 서사를 따라간다는 드라마의 특성상, 다수의 시청자가 유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편견의 불합리성을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창출해낸다. 주된 서사 아래에서 새로운 서사적 맥락을 읽어내는 이 글의 작업은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로맨스 서사와 스릴러의 쾌감을 따라가면서 이미 이입하고 추체험한 통속적인 돌봄의 현실을<sup>12</sup>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이를 넘어선 이상적 대안의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두 드라마는 인물들과 그들이 통과해 가는 돌봄 관계의 서사를 통해 돌봄의 실천과 가치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결국에는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둔 이상적 사회를 브라운관 내에 구축해 보이기 때문이다.

「동백꽃」과 「사괘」은 ‘정상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 가족에 대

---

11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 길-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방법론』, 박이정, 2019, 55쪽.

12 보통 드라마에서 소외계층, 특히 미혼모 가족이나 장애인 가족의 수난은 ‘신파’라 불리며 로맨스 서사로 한 번 더 덧입혀져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권두현의 지적처럼 ‘신파’는 단순히 개인의 감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등장인물과 수용자가 공유하는 미감을 통해서 발생한다. 「동백꽃」에서 이러한 ‘신파’는 드라마에서 일종의 ‘정동 체계(affective system)’로 작동하며 돌봄의 위기를 형상화한다.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2)-텔레비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타난 연결과 의존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38쪽.) 말하자면 이 드라마의 ‘신파성’이란 기본적으로 ‘돌봄’ 문제가 지닌 ‘통속성’, 즉 ‘돌봄’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한 번도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엇’이다.

한 돌봄 책임을 혼자서 무겁게 감당하는 가난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백꽃」의 주인공인 동백은 미혼모로, 8살 난 아들 필구와 둘이서 산다. 피붙이 하나 없이 고아로 자란 동백은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에 대한 조력을 기대할 그 어떤 친족 네트워크도 갖고 있지 않다. 아기 하나 달랑 안고 가상의 바닷가 마을 웅산의 계장골목으로 이사 와 수년간 ‘술 파는’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동백은,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성적 대상화,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낸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이다.

「사괘」의 주인공 강태는 지적장애를 지닌 7살 위의 형을 돌보며 함께 산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형 상태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짊어진 채 소년 가장으로 어렵게 살아왔다. 성인이 된 후로는 정신과 병원의 보호사로 취업하여 자신과 형을 부양하는데, 그마저도 매년 특정 시기에 발현되는 형 상태의 트라우마 발작 때문에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1년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떠돌이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급생으로 같은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간호사 주리의 초대로 고향인 성진시로 돌아가 ‘괜찮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백꽃」의 동백과 「사괘」의 강태의 어린시절은 상당히 유사한 서사를 갖고 있다. 아버지의 부재, 홀어머니와 생활했던 유년기의 가난, 어머니와의 갑작스런 이별, 학령기 이후 고아로서 살아온 삶이 그것이다. 두 주인공의 변모와 성장을 추동하는 발판으로 마련된 클리셰적 설정으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어린 시절의 서사는 기실, 두 주인공의 삶에서 주된 질곡으로 작동하는 ‘고립된 돌봄’의 문제를 설명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동백과 강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 시절부터 원만한 돌봄 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타인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했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그러한 타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경찰이 되어 웅산에 돌아온 황용식을 만나기 전까지의 동백과, 성진으로 돌아가 동화작가 고문영과 교류하기 전까지의 강태는, 둘 다 유사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동백은 오롯이 혼자 돌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강태는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부인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스스로를 윤패시킨다. 이들의 행위는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희생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본인들의 불행을 증폭시



켜 제대로 된 돌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두 주인공의 이러한 주체적 위기는 각각 웅산과 성진에서 만난 공동체적 관계와 용식·문영과의 이성애적 연애를 통해 해소된다.

「동백꽃」과 「사괘」은 웅산 계장골목과 성진시 ‘괜찮은 병원’이라는 상상적인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작동을 이야기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계장골목과 ‘괜찮은 병원’은 바닷가 마을과 중소도시,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의 생활공간과 정신과 병원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가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의 등장 이전에 이미 타인을 먹이고 신경 쓰는 사람들의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장소성을 가진다. 「동백꽃」의 연쇄살인범 까불이나 「사괘」의 최종 빌런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사이코인 도희재의 존재는, 이런 선량한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채택된 스킬러물의 장치다.

주인공에게 부과된 압도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 어떤 지원도 자원도 동원가능하지 않은 가난한 돌봄자의 고립된 돌봄, 그리고 그로 인한 질곡과 고통이 ‘정상가족’과 젠더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려지고, 과히 이상적일망정 돌봄의 관계가 살아 있는 공동체와 그 속에 있는 특정인과의 관계맺음이 삶과 돌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드라마의 서사는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 돌봄자의 성별이 다르고 모자관계와 형제관계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2인 가족으로 고립되어 살면서 일방적 돌봄관계를 이어 나가려던 주인공이 공동체 속에서 이뤄진 좀 더 넓은 가족관계의 구성을 통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점 역시 공통된다. 이 두 드라마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돌봄자와 돌봄수혜자 사이의 1:1 돌봄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 더해지는 또 다른 특정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맺음과 이 관계가 뿌리내린 공동체적 관계의 역동이 돌봄의 실천과 수행에 갖는 의미를 재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과 유급돌봄노동으로 이분화되어 여성 돌봄자의 소외된 노동으로 수행되는 돌봄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을 발굴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검토

### 2.1 돌봄의 정의와 페미니스트 돌봄 이론

조안 트론토와 베레니스 피서는 “우리가 가능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의 활동”을 돌봄이라고 정의한다.<sup>13</sup> 그러나 버지니아 헬드는 돌봄의 정의를 이와 같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돌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의존자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돌봄수혜자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문현아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진정으로 부응하여 배려하고 보살피는”<sup>15</sup> 것이 돌봄이라고 정의한다. 타인의 생존과 성장, 건강한 생활 등을 위해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자기 책무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과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여 제공하는 것이 곧 돌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아기와 노인, 환자 등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고, 주로 여성들이 행하는 ‘집안일’의 일부로 행해졌다. 돌봄이 오랫동안 여성성이나 사랑의 행위로 좁게 이해되고, 인간적 삶에 기여하는 노동으로도, 사회활동의 윤리적 기초로도 여겨지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돌봄을 윤리적 가치를 가진 인간 활동으로 처음 자리매김한 것은 캐럴 길리건의 1982년 저작 『침묵에서 말하기로(In a Different Voice)』였다.<sup>16</sup> 길리건은 도덕을 구성하는 두 축으로서 돌봄과 정의를 세우고, 각각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경험과 결부된다고 보았다.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와 경쟁적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남아들은 권리와 규칙을 강조하는 정의 윤리를, 연결과 돌봄을 주로 경험하며 성장하는 여아들은 책임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돌봄 윤리를 발달시킨다는 것이

13 Joan C. Tronto and Berenice Fisher,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Abel & M. Nelson eds., *Circle of Care*, Albany: SUNY Press, 1990, p.40.

14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 70-72쪽.

15 문현아, 「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정진주 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한울, 2012, 21쪽.

16 캐럴 길리건,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63-404쪽.

다. 이러한 길리건의 논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지워져 온 돌봄을 가시화하고 재평가하는 획기적인 의의를 가졌으나, 다른 한편 돌봄의 윤리를 여성적 특성으로 환원하고 가족 내 돌봄 역할과 여성의 연결을 해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돌봄과 여성의 연결이 본격적으로 해체된 것은 사라 러딕의 1995년 저작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를 통해서였다.<sup>17</sup> 사라 러딕은 어머니를 일상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어머니의 활동을 크게 보호(preservation), 양육(nurturance), 훈육(training)으로 나눈다. 그는 이러한 모성적 활동이 인식론적인 것이자 동시에 실천적인 것이며, 아이를 출산했다는 육체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아이에게 어머니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어머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딕은 모성의 재규정을 통해, 돌봄을 여성의 성역할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과 윤리적 지향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로운 일로 자리매김했다.

길리건과 러딕의 논의가 가족 내 돌봄노동의 재평가와 재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일군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자들은 근대 국가의 사회재생산과 관련하여 돌봄과 젠더의 문제를 다루었다. 캐럴 페이트만은 근대 국가의 사회질서가 공/사의 영역구분과 근대적 성별분업을 기초로 설계되었음을 지적한다. 유급 생산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생계부양자(breadwinner)와 가족 돌봄을 위해 무급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는 가정주부(housewives)로 구성된 근대적 성별분업과 핵가족이 사회 재생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이 속에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은 ‘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비가시화되었지만, 기실은 산업사회와 복지국가의 전체 체계를 떠받치는 요소였다.

낸시 프레이저는 후기 산업사회가 목도한 복지국가 위기가 이러한 산업사회적 젠더 질서의 붕괴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기존 복지국가가 발전시켜 온 주요한 두 접근인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과 ‘동등

---

17 사라 러딕,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39-388쪽.

18 Carole Pateman,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1989, pp.179-209.

한 돌봄제공자 모델(caregiver parity model)'이 공히, 유급생계노동과 무급돌봄 노동을 대립시키는 구도를 해체하지 못하고 근대적 성별 노동분업을 전복하기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계노동자이자 돌봄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규범으로 삼아 남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일자리가 돌봄제공자이자 노동자인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제시했다.<sup>19</sup>

더 케어 콜렉티브는 복지국가 재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돌봄이 빠르게 시장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오늘의 상황에 주목한다. '자기 것 돌보기'의 편집증적 형태를 가져온 신자유주의는 "자율적이고 기업가적이며 실패를 모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sup>20</sup> 개인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삼고, 우리가 지닌 상호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돌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핵가족이 돌봄의 기본 단위라는 것은 허상이며, 돌봄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부유한 사람들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돌봄 수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돌봄 체계가 결국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결과"<sup>21</sup>를 가져왔다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돌봄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되고 중심에 놓이는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보편적 돌봄'이 새로운 대안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2.2 돌봄 관계와 돌봄의 공동체

에바 키티이는 돌봄노동을 '의존노동'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돌봄의존은 모든 상호의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sup>22</sup> 공리

19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가족임금 그 다음: 후-산업시대에 대한 사고실험」,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적의 역사』, 돌베개, 2020, 157-192쪽.

20 더 케어 콜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 선언』, 니케북스, 2021, 29쪽.

21 위의 책, 39쪽.

22 "일반적으로 의존이라고 하면, 엄마품 같은 돌봄을 제공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장은 비서에게 의존한다. 도시인은 농촌 공동체에 의

주의나 칸트주의 등 현대 사회질서를 떠받쳐 온 윤리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자기충족적이고 원자적인 자아로 전제하지만, 인간은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관계적인’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에 연루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삶을 영위한다. 키테이는 ‘의존’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을 홀로 처리할 수 없기에, “의존은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다.”<sup>23</sup> 인간은 누구나 의존적이며, 그런 점에서 돌봄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초적 활동이다.

돌봄은 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다른 사람의 노동인 동시에, 지적·정서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실천이다. 낸시 폴브레는 돌봄노동을 가사노동 일반과 구별하기 위해 “타인의 역량(capabilities)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역량이란 건강, 기술, 역능 등을 일컬으며 육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 등을 포함한다.<sup>24</sup> 이런 돌봄은 기본적으로 돌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돌봄 관계는 매일의 돌봄을 통해 관계 그 자체가 누적적으로 공고해지는 특징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돌봄이 단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이 맡아 돌보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봄은 한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연결 짓는 일로, 단순히 개인에게 부과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육체적·심리적 에너지를 요청한다. 따라서 돌봄자 역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돌봄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온전한 돌봄은 불가능해진다. 돌봄이 돌봄자와 돌봄대상자 사이의 일대일 관계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

존한다. 농부는 전기 기사에게 의존한다. 교수도 미화원에게 의존하며, 미화원은 기술자에게 의존한다. 이렇듯 계속해서 의존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다. 내 논지는 이러한 상호의존이 돌봄의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에바 페더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박영사, 2016, 30쪽.)

23 위의 책, 82쪽.

24 Nancy Folbre, *Who Pays for the Kids? : Gender and the Structure of Constraint*, London: Routledge, 1994, pp.1-262.

에 있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1대1의 돌봄 관계는 기실,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관계 위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키테이는 이를 ‘둘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돌봄자는 의존인(즉, 돌봄대상자를-인용자) 돌봄 책임이 있다. 사회는 돌봄자의 노동과 관심이 착취되지 않은 채 돌봄자가 의존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자의 안녕을 보살피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이것이 둘리아의 공적 개념이다. 인간의 의존은 불가피한 정의의 여건이며, 의존노동자는(즉, 돌봄노동자는-인용자) 의존인을 돌봄으로써 대상자의 안녕을 우위에 두게 된다. 따라서 둘리아의 공적 개념은 의존노동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의존인에 대한 돌봄 제공, 그리고 근본적인 인간의 애착이 함양되고 성장하는 의존관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sup>25</sup>

키테이의 둘리아 개념은 상호 교환을 넘어선 확장된 호혜성을 통해, 일대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내가 타인에게 제공한 돌봄은 직접적인 쌍방 교환을 통해 내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다란 원의 순환 관계처럼 사회 연결망 내의 여러 타인들을 거치고 거쳐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트론토는 『돌봄 민주주의』에서 돌봄을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둘리아는 이 과정에서도 일종의 정치적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sup>26</sup>

더 케어 콜렉티브는 『돌봄 선언』에서 상호 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 민주주의 등을 ‘돌보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한다.<sup>27</sup> 오랫동안 ‘시장’과 ‘가족’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돌봄의 제공이 돌봄자의 소외와 고립을 야기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음을 직시하

---

25 에바 페더 키테이, 앞의 책, 200-201쪽.

26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24쪽.

27 더 케어 콜렉티브, 앞의 책, 89-111쪽 참고.

고, 친족과 가족을 넘어선 친밀한 관계들과 그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돌봄을 의미하는 ‘난잡한 돌봄’<sup>28</sup>을 새로운 돌봄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지는 논의이다. 난잡한 돌봄의 개념과 돌봄의 지역공동체 형성은, 핵가족과 친족관계를 기반으로 공/사 영역 구분과 무급/유급노동이 교차되는 가운데 돌봄 책임의 젠더 분배가 일어나는 현재의 돌봄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발본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더 케어 컬렉티브가 제안하는 핵심적 출발점이다.

### 3 고립된 돌봄과 공동체로의 진입

#### 3.1 고립된 돌봄자의 자기억압과 돌봄의 왜곡

「동백꽃」과 「사괘」의 두 주인공인 동백과 강태는 자신의 돌봄대상자에 대한 유일한 돌봄자로 돌봄을 수행하는 한편, 돌봄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동도 전담한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홀로 돌봄노동과 생계노동을 병행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역량 이상을 요구하는 일로, 이러한 상황의 오랜 지속은 그들이 가진 전체적인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들은 돌봄을 수행하느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수행해 온 돌봄의 역량과 관련된 분야에서 불안정노동의 형태의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느라 다른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강태는, 대신 형을 돌보는 시간 동안 길러진 역량을 바탕으로 삼아 정신병동 보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한다. 동백이 술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 역시 본인이 요리 솜씨 이외에 다른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저녁 장사만 하는 술집이 그녀가 어린 필구에 대한 돌봄

28 ‘난잡한 돌봄’의 개념에서 ‘난잡함’이란 표현은 에이즈 인권활동가였던 더글러스 크림프의 에세이 「전염병 중에 난잡할 수 있는 방법」에 기원을 둔다. 에세이에서 크림프는 ‘난잡함’이란 단어를 “게이들이 서로에 대해 친밀감과 돌봄을 나누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험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더 케어 컬렉티브는 이 용례를 발전시켜 ‘난잡한 돌봄’을 정의한다. 난잡한 돌봄을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증식해가는 윤리 원칙”으로 정의하고, ‘난잡함’의 의미를 더 많은 돌봄을 더 실천적이고 더 실험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즉, 이들이 사용하는 ‘난잡한 돌봄’이란 즉 ‘차별적이지 않은 돌봄’의 뜻이며, 가족이나 유급노동에만 갇히지 않은 더 넓은 돌봄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위의 책, 79-86쪽 참고.)



과 병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겪는 과잉 돌봄의 어려움은 드라마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수난이며, 동시에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만들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종의 약점으로 작동한다. 키테이는 의존관계(=돌봄 관계)에서 야기된 의무감이 돌봄자가 갖는 특수한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29</sup> 돌봄자는 돌봄대상자의 필요를 자신의 이익에 앞세우며, 돌봄대상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안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돌봄자는 “자신의 이익과 미래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때조차” 돌봄의 의무를 기꺼이 맡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돌봄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동백과 강태처럼 돌봄 책임을 나눠 질 그 어떤 조력자도 구할 수 없어 오롯이 혼자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가며 생계와 돌봄을 꾸리는 사람들은, 쉽게 의무감에 짓눌린 자기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동백은 야구에 소질을 보이는 아들 필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주기 위해 돌봄자이자 경제적 부양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돌봄의 결핍이 필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미혼모’가 ‘술집’을 한다는 탓에 쏟아지는—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을 내보이거나 가게를 쉬지 않는다. 우연히 만나 자신의 술집을 찾아온 필구의 친부 종렬이 왜 술집을 하나며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자 동백은 단호하게 “아니, 나랑 어울려”라고 답한다. 술집 운영에 대한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동백의 태도가 갖는 의미는 술집의 유일한 종업원인 향미가 왜 하필 ‘술장사’를 하나고 물었을 때의 대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동백 우리 필구는 키워야 되고, 여러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힘들고 모양 빠지는 거 다 내가 하고, 나는 우리 필구 메이저리그 갈 때 돈 많이 든 통장 하나 쥐어주는 거. 그럼 동백이 인생은 만고평이지 뭐.

4회 〈2019년 가장 격렬한 화제작 ‘촌놈’〉 중

29 에바 페더 키테이, 앞의 책, 135-136쪽.



이 대답은 동백이 자신을 오직 필구의 돌봄자로 정체화하고 있으며, 돌봄대상자인 필구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백에게 슬집 운영은 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인 것이다. 메이저리그 진출 여부가 필구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겠지만, 필구가 야구선수로서 성장하는 동안 충분한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 슬하를 떠날 때 “돈 많이 든 통장 하나 쥐어주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어머니로서 동백이 갖는 내심이다.

그러기에 동백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이며,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필구가 걱정하는 것을 마뜩치 않게 여긴다. 이는 자기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모르지 않는 필구가 야구팀의 해외 전지훈련을 포기하려다가 종렬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눈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필구가 동백에게 “엄마도 내가 중국 공짜로 가서 좋구나”라고 말하자, 동백은 좋지 않다고 하며 “엄마가 두루치기를 얼마나 팔아야 48만원인지 그런 건 네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답한다. 필구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가 해소된 사실에 집중하여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동백은 돌봄자로서의 자기 취약성이 돌봄대상자에게 드러나 버린 사건으로 여기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동백은 자신의 경제적 무능함으로 인해 종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사건을 돌봄의 실패로 간주하며, 필구를 포함한 그 어떤 타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백이 돌봄대상자를 위한 과도한 경제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고립된 돌봄자로 살아간다면, 강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돌봄에 집중하고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를 유폐시키는 삶을 산다. 형 상태의 트라우마로 인해 매년 이사를 다니는 처지라 현실적으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기도 했지만, 사실 강태가 관계맺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내부의 방어 기제에 있다. 강태에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유폐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의 책무를 추가하여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부담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강태의 방어적 태도를 뚫고 들어가 그의 진짜 모습을 꺼내려는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상태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동화작가 고문영이다. 거침없는 성격의 문영은 강태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지만, 강태는 계속해서 문영의 마음을 거절한다.

강태 형 하나로 충분해. 충분히 버거워.

문영 형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나도 책임져. 나도 너 필요해.

강태 나 더 이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 6회 <푸른 수염의 비밀> 중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시청자들은 강태에게 문영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강태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방어적으로 굴면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문영 역시 이를 모르지 않으며, “왜 그렇게 재미 없게 살아? 그렇게 참고 누르면 병 나. 너 놓고 싶잖아.”라고 강태를 자극한다. 그런 문영의 지적에 대하여 강태는 네가 나에 대해 뭘 아냐고 따져 묻고, 문영은 강태를 ‘위선자’라고 부른다. 이 호명은 강태가 돌봄자로서의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강태가 상태에 대해 갖는 돌봄의 책임감에 한 번 더 채찍질을 가한 것처럼 비춰진다. 이후의 장면에서, 잠시나마 다른 삶을 상상해보던 강태가 그 과정에서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돌봄자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행하는 돌봄은 돌봄대상자를 위한 온전한 돌봄이 되기 어렵지만, 강태는 ‘위선자’로 불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욕구들을 배제하고 고립된 돌봄을 유지하고자 한다.

강태의 이 아슬아슬한 자기유폐는 결국 깨어지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꺾 사람은 강태 자신이 아닌 형 상태이다. 상태가 먼저 강태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강태의 돌봄대상자인 상태에게 필요한 돌봄이 동생이자 돌봄자인 강태의 배타적 돌봄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좋은 삶 역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0</sup> 장애인의 독립된 삶이란 돌봄의 부

---

30 김정은과 조태홍은 개인이 사회적 역할로부터 역할과 관련된 자아를 형성하고 이러한 역할 정체성이 다시금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역할 정체성 이론과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성인장애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기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 기쁨과 보람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인정을 지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과도한 수혜’로부터 나타나는 성인 장애인의 ‘의존적’ 인식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은·조태홍, 「돌봄

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데,<sup>31</sup> 「사괘」 6회에서 상태가 문영의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기로 계약한 것은 상태에게 그러한 기회 의미였다. 그러나 강태는 이 사실을 알고서 화를 내며 계약서를 찢어버린다. 이에 상태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태를 때리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문상태는 문상태 거야!” 라고 울부짖는다. 강태가 제공하는 돌봄의 틀 안에서만 살아오던 형 상태의 첫 독립선언인 것이다.

이 장면은 돌봄자의 권력과 돌봄대상자의 자율성에 대한 키테이의 논의와 연관된다. 키테이가 ‘의존노동’이라고 칭하는 돌봄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돌봄대상자를 위해 돌봄자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돌봄대상자가 늘 전적인 ‘의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돌봄자는 돌봄대상자의 의존성 때문에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권력적 우위에 위치하게 되기에, 돌봄의 정도는 돌봄 대상자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돌봄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sup>32</sup> 이는 돌봄대상자가 독립적일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자가 이에 대해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돌봄대상자는 돌봄의 정도를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상태의 독립선언 이후 강태가 자신이 자임했던 일방적 돌봄자의 위치를 반성하고 돌봄대상자와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돌봄자가 자처한 고립된 돌봄자의 역할은 「동백꽃」에서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온전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형태로 돌봄 책임을 떠맡은 동백의 고립이 급기야 돌봄대상자인 필구에게까지 부담을 지웠기 때문이다. 「동백꽃」

---

역할의 전환과 교환-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5, 207쪽 참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상태에게도 수동적인 돌봄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지위의 부여와 그를 통한 자립심 획득이 필요했으며, 만일 그것이 강제적으로 억압된다면 충분히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거나 외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더 케어 콜렉티브, 앞의 책, 61쪽.

32 에바 페더 키테이, 앞의 책, 88-91쪽 참고.

2회에서는 동백의 술집 종업원 향미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재영의 남편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실이 밝혀져 계장골목 사람들로부터 집단적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람들을 말리는 동백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이를 알게 된 필구가 끼어들어 동백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다. 상황이 정리된 이후 동백과 필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동백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필구 내가 왜 싸움닭이 됐는지 엄마가 알긴 알아? 엄마,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엄마를 지켜야 돼?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지! 나는 일학년인데... 일학년이 왜 엄마를 지켜!

동백 내가, 내가 너한테 나 지켜달라고 했었어?

필구 나도 귀찮아, 근데 내가 엄마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동백 왜?

필구 나 빼고 세상 사람들 다 엄마를 싫어하니까! 세상에서 엄마 좋아하는 사람 나 밖에 없잖아. 나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엄마 싫어하고 괴롭히잖아. 그니까 내가 야구도 못하고 계속, 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어떨 때는 나도 막... 막... 피곤해. 마음이 막... 화가 나...

2회 〈좋은 놈, 나쁜 놈, 치사한 놈〉 중

극의 비교적 초반부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의 서사적 중요성은, 잠재적 양육자로서 친부 종렬의 등장이나 두 모자를 위협하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재등장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삶에 다소 갑작스런 변화를 맞게 된 동백이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필구를 ‘온전히’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돌봄을 행하는 돌봄자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돌봄대상자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화이기도 하다. 필구가 동백을 ‘지킨다’는 말을 통해 의미하는 바가 진정한 돌봄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돌봄자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불안정성의 노출이 돌봄대상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서나마 일종의 호혜적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것이 동백에게 충

격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사괘」의 강태와 「동백꽃」의 필구가 돌봄자인 강태와 동백에게 보인 반발에 피소드에서 공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통해 돌봄자가 돌봄대상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래 시간 지속되어 온 일방향적 돌봄은 고립된 돌봄자로 하여금 돌봄대상자를 자신에게 백 퍼센트 의존적인 존재로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두 드라마의 돌봄대상자들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돌봄자가 자립적 환경을 조금씩 확장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느슨한 돌봄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요청되는 사람들이다. 아이돌봄의 목표는 아이를 성장시켜 독립시키는 것이고, 장애인돌봄 역시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영역을 보장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 돌봄자가 돌봄대상자를 온전히 의존적 존재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돌봄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태의 독립선언과 필구의 엄마를 ‘지키는’ 부담감의 토로 장면은 이를 분명히 밝히며, 느슨한 돌봄 관계가 결코 ‘부족한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나은 돌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2 손을 내밀어 고립을 깨어 준 공동체의 개인들

두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돌봄’은 그들이 계장골목과 괜찮은 병원의 공동체 내부로 진입하고 공동체 속에서 돌봄 관계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괘」의 강태는 ‘괜찮은 병원’의 간호사인 고향 친구 주리의 직접적인 초대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살게 되는 하숙집의 주인인 순덕을 비롯해 오주왕 병원장까지 다수에게 환대를 받는다. 반면, 「동백꽃」의 동백은 오직 자신만의 결정에 의하여 웅산에 터를 잡았고, 그녀의 술집 ‘카멜리아’가 처음부터 웅산시의 계장 골목과 어울리지는 않는 이질적 공간으로 등장하는 등 계장골목의 공동체적 관계에 진입하기 어려운 여러 장벽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동백을 사랑하는 경찰 황용식이 등장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웅산에서 이방인처럼 존재하던 동백을 공동체의 좀 더 긴밀한 연결망 내로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동백을 향한 용식의 무한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동백을 자기 자신의 틀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된다. 동백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지지를 용식으로부터 받는 장면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백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몰아붙임’과 그로 인한 고단함의 축적은 「동백꽃」 4회에서 동백으로 하여금 용식에게 ‘사는 것이 쪽팔린다’고 고백하게 만든다. 이 ‘쪽팔림’이란 주로 필구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종렬이 필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구네 학교 야구팀 전체의 전지훈련비를 낸 데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동백의 ‘쪽팔림’은 동백이 그토록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필구에 대한 돌봄의 한 지점을 다른 누군가가 손쉽게 제공해버린 데에 있다. 사실 이것은 동백 혹은 동백의 돌봄 수행에 내재한 결점이라기보다는, 가난한 미혼모가 그 어떤 의존도 도움도 거부하고 오롯이 자기만의 힘으로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만든 구조의 문제지만, 동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백 내 인생이 뭐가 이래요? 학교 때는 반에 고아도 나 하나, 커서는 동네에 미혼모도 나 하나. 48만 원 때문에 아들내미 철들게 하는 것도 나 하나. 나도 좀 짱하게 살고 싶은데... 아유... 참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야박해. 나만 자꾸 망신을 줘.

용식 동백씨, 약한 척 하지 말아요. 고아에 미혼모인 동백씨 모르는 놈들이 보면 동백씨 박복하다고 쉽게 떠들고 다닐지 몰라도요, 까놓고 말해서 동백씨 억세게 운 좋은 거 아녜요? 고아에, 미혼모가, 예? 필구를 혼자서 저렇게 잘 키우고, 자영업 사장님까지 됐어요. 남 탓 안 하고요, 치사하게 안 살고, 그 와중에 남보다도 더 착하고, 더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거 다들 우러러 보고 박수 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백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용식 남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사 빠졌어요. 근데 누가 너를 욕해요? 동백씨 이 동네에서요 제일로 썩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쪽팔린다’는 동백의 고백이 의미심장해지는 것은 사실 그에 대한 용식의 반응에 있다. 용식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동백이 해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해당 시점까지 홀로 생계를 이끌고 ‘돌봄’을 실천해 온 동백의 노고를 칭찬해 준다. 이러한 칭찬을 통해 용식은 일반적으로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비전문적인 돌봄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sup>33</sup> 동백에게 돌봄자로서의 인정과 존중을 제공한다. ‘돌봄’은 대개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적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지위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되는 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돌봄자가 겪는 어려움은 돌봄자 자신의 능력 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쪽팔려하던’ 동백에게 용식의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탈출구이자, 사회가 제공하지 않은 자신의 돌봄에 대한 인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해당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동백의 내레이션이 따라오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던 고립된 돌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동백의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적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백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돌봄자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돌봄을 행할 수 있음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이때 동백의 질문은 드라마의 마지막 회인 <기적 같은 소리>에서 그녀가 웅산의 지역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봄을 받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된다. 이 서사를 통해 드라마 「동백꽃」은 ‘돌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 체계가 존재한다면 ‘돌봄’ 그 자체와 돌봄관계를 돌보는 공동체의 작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질 것임을 암시한다. 비록 드라마의 표면적 텍스트 안에서는 황용식이라는 비범한 사랑꾼의 로맨스 폭격이라는 형태로 그 인정과 지지, 존중이 주어졌지만 말이다.

「사관」에서는 ‘괜찮은 병원’ 원장인 오주왕을 비롯하여, 처음 강태를 초대한

33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아카데미, 2009, 142쪽.

간호사 주리, 주리의 어머니이자 관찮은 병원의 조리장인 순덕이 어린 시절 성진시를 떠났다 되돌아온 두 형제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이 인물들은 성진시로의 이사와 문영과의 만남으로 강태와 상태가 갈등을 겪을 때 돌봄자인 강태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상태에 대한 강태의 돌봄을 보조함으로써 자신을 굳게 유쾌시키고 때로는 한 발 더 안쪽으로 숨으려 하는 강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순덕 강태야, 형 응원해줘. 여태 살 수 있게 보살폈으면, 이제 할 수 있게 밀어주는 단계로 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그거 막는 거 아냐. 막아지지도 않고.

6회 〈푸른 수염의 비밀〉 중

주리 우리가 환자들한테 늘 하는 말 있죠.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이기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그냥 강태씨 본인 행복만 생각해요. 그러도 돼요.

7회 〈양치기 소녀〉 중

수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강태와 상태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둘 사이의 다툼을 기점으로 크게 뒤틀리게 되는데, 이를 전해들은 순덕은 강태에게 상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조언한다. 상태가 “문상태는 문상태 꺼!”를 외치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했을 때, 강태는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순덕의 “여태 살 수 있게 보살폈으면, 이제 할 수 있게 밀어주는 단계로 가”라는 대사는 강태가 이전의 일방적 돌봄을 벗어나 새로운 돌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금까지의 돌봄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불안해하는 강태를 따뜻하게 다독인다. 순덕은 돌봄자인 강태를 돌보고 지지함으로써 강태와 상태의 돌봄 관계를 다른 국면으로 진전시키는 돌봄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강태에게 “본인 행복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주리의 대사는 사실상 ‘참고 누



르고’ 살지 말라는 문영의 말과 같은 층위에 있지만, 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강태가 ‘이기적’ 태도라고 인지하는 자신의 행복이 사실상 타인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구체적 서사를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기반으로 하기에, 돌봄자의 기분과 태도는 돌봄대상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대화들은 돌봄자인 강태의 성장을 가져오며,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강태와 상태는 이전의 돌봄 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돌봄의 형태를 구성해갈 수 있게 된다.

강태의 이러한 성장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지만, 그 가장 큰 계기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삶의 변화를 강태 스스로 시도하게 되는 데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열쇠를 강태의 손에 쥐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문영이다. 이 열쇠는 드라마 내에서 ‘고문영의 안전핀’이라는 상징으로 묘사된다. 문영은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급작스런 분노에 휩싸이곤 하며, 이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일삼는 인물이다. 드라마 2회에서 문영은 자신의 새 작품 출간 기념 사인회에 나타나 성적인 누앙스를 풍기며 비아냥대는 평론가의 눈을 만년필로 찌르려고 하나, 강태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제지하자 진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문영 나 화나게 하지 마. 터져...

강태 그래서 나비포옹 알려줬잖아.

문영 그깟 걸론 어림도 없어. 네가 내 안전핀 해라.

2회 〈빨간 구두 아가씨〉 중

드라마 초반부터 문영은 강태에게 자신의 ‘안전핀’이 될 것을 제안하지만, 강태는 계속 거절한다. 하지만 이 거부는 드라마 8회에서 끝이 난다. 이 회차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입원한 여성 환자의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려던 문영이 그에게 맞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목격한 강태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즉각 가해자를 제압하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정직을 당한다. 강태가 나타나 가해자를 제압하자 가해자에게 반격하기 위해 몰래 돌을 쥐고 있던 문영이 그것을 내려놓는 장면은, 2회에서 평론가를 찌르려던 만

년필을 내려놓는 장면과 짝을 이룬다.

이 사건은 문영과 강태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문영은 강태라는 ‘안전핀’을 갖게 되자, 이후 급작스런 분노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강태와 상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강태에게 이 사건은 그동안 문영에게 끌리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가두어왔던 고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계기였다. 강태는 병원에서 정직을 당할 위기 앞에서도 본인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의사로 이뤄진 행위였음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문영에게 달려가 정직당했음을 알린다. “그동안은 월급도 한 푼 안 나오고, 조만간 고소장도 날아 올 거래. 완전 다 엉망진창이야”라는 강태의 대사에서 “엉망진창”은, 강태가 이전에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뜻한다. 정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강태는 흥가분한 마음과 넘치는 희열로 웃으면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이 변화는, 그때까지 관찮은 병원 공동체의 외부자로 존재하던 문영까지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다. 문영과 강태가 단 둘이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게 된 상태가 병원에서 돌발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강태가 다시 문영이 없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 시도할 때, 강태의 빈자리에서 문영을 보듬어준 사람이 주리와 순덕이다. 문영은 강태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너네 형한테 인질처럼 억지로 붙들려 사는 거 관두라”고 강태를 붙잡지만, 강태는 “꿈에서 깬다”며 형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고는 문영을 떠난다. 이에 좌절한 문영은 우연히 주리와 술을 마시며 과거의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며, 강태의 하숙집에 찾아갔다가 순덕이 차려준 따뜻한 생일상을 받게 된다.

그 후 순덕은 강태와 문영, 상태 세 사람의 관계를 계속 지켜보며 격려한다. 이들이 병원과 하숙집에서 먹는 밥을 도맡아 짓는 것도 사실 순덕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리의 어머니 순덕이 하숙집 주인이자 병원의 조리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전체에서 순덕은 공동체의 젊은이들을 먹이고 격려하고 지켜보며 성장을 돕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순덕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알리며 딸 고문영을 옥죄어 들어가는 연쇄살인범 도희재의 모성과 대비되어 생물학적 어머니가 돌봄 제공의 필연적 연결고리

가 아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돌봄자로서의 어머니를 체현해 낸다.

「동백꽃」과 「사괘」에서 동백과 강태가 스스로의 고립을 깨고 돌봄자로서 더욱 성장해 가는 과정은, 돌봄의 공동체 안에서 동백과 강태를 향하여 손을 내민 사람들을 통해 촉발되고 지지된다. 「동백꽃」의 용식과 「사괘」의 순덕, 주리는 각각 필구에 대한 동백의 돌봄과 상태에 대한 강태의 돌봄을 일부 공유하며, 동시에 돌봄자인 동백과 강태를 돌보는 존재들이다. 돌봄대상자에 대한 돌봄 책임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소진되어가던 돌봄자들은, 돌봄 책임을 나눠지고 돌봄자를 격려하며 돌봄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장하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갈 용기를 얻는다. 돌봄 관계가 1:1의 고립된 관계로 이뤄지고 돌봄자가 돌봄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상태에서는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돌봄자를 돌보는 사람과 이 돌봄을 통해 만들어지는 돌봄 관계의 연쇄가 돌봄의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꼭 필요함을 두 드라마는 보여준다. 두 드라마에서 웅산 계장골목과 ‘괘찮은 병원’을 둘러싼 지역공동체는 이러한 돌봄 관계의 연쇄가 가능해 질 수 있는 곳으로 그려진 매우 이상화된 공동체이며, 두 드라마의 로맨스 서사를 떠받치는 기반이 된다.

## 4 돌봄의 공동체

### 4.1 ‘이상한 나라의 웅산’

동백이 연고도 없는 타지 ‘웅산’에 자리 잡게 된 것은 필구의 친부이자 전 연인인 종렬의 말에서 기원한다. 드라마 19회 과거 회상 장면에서 종렬이 동백과의 연애 시절, 자신의 고향이었으면 하는 동네가 바로 웅산이라며 동백에게 말해준다.

종렬   웅산,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고 싶어. 나중에 우리 애 생기면 꼭 거기서 키우자.

동백   거기가 네 고향이야?

종렬   으음, 고향이었으면 하는 동네. 어렸을 때 거기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동네 되게 이상하거든. 무슨 씨족 사회? 그런 것처럼 온 동네가 이상해. 밥 때가 되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

면 때. 그럼 가타부타 말도 없이 손가락 하나 더 놔줘. 그게 되게  
당연한 동네거든. 온 동네가 무슨 가족 같아.

동백 가족?

종렬 막 친절하진 않은데 뭔가 되게 따뜻해.

10회 <착한 놈은 계를 못 타> 중

웅산에 대한 종렬의 설명은 동백으로 하여금 그녀도 남들과 다르지 않게 섞일 수 있을 공동체의 울타리로서 ‘웅산’이라는 장소를 상상하게 한다. 웅산은 동백에게 종렬과의 재결합이나 그와 함께 꿈꾸던 과거로의 회귀를 종용하는 연결고리가 아닌, 자신이 타인과 온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하고, ‘동백’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한 명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동백의 기대이다. 한편, 종렬이 웅산에 올 때마다 그의 고질병인 변비의 해소를 경험한다는 설정 역시 웅산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암시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동백꽃」의 초반에 웅산 계장골목의 여성 구성원들이 동백에게 일종의 텃세를 부리며 비난적 언어를 일삼는 것을 고려한다면, 웅산의 지역 공동체가 동백이네 가족에 대한 ‘돌봄’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일견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쇄살인범인 까불이 때문에 동백이네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했을 때, 동백이 엄마와 향미에게 하는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백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변 인물들의 동백을 향한 배움은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특히 동백에게 계속해서 텃세를 부리고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다음 언급은, 웅산과 계장골목이 갖는 독특한 돌봄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동백 이 동네 아줌마들 진짜 이상하긴 했어.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맨날 김장하면 김치는 꼭 준다. 그건 엄청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김치를 주더라. 맨날 ‘야! 김치 언제 가져갈 꺼?’ 이려고 성을 낸

다? 그리고 보면 진짜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래서 솔직히 나는 좀 좋았던 것도 같아. 다른 데는 대놓고 미워하진 않아도 김치는 안 주거든. 그거 진짜 엄청 다른 거거든.

## 9회 〈웰컴이다〉 중

웅산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소위 ‘타지인’이라 불리는 타인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곳이 결코 아니다. 이런 점은 동백이 ‘다른 데’라고 칭하는 곳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데’와 ‘웅산’의 분명한 차이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동백을 “대놓고 미워하진 않”는 다른 데 사람들은 동백의 정체성을 불편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그녀의 처지에 대한 이해나 관계 맺음을 거부한다. 반면, 웅산은 미혼모라는 동백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혼모로서 동백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닌 편견<sup>34</sup>을 자연스레 노출시킴으로써 그러한 편견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의 축적은 동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실 동백이 오랫동안 김치를 받아왔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보이는 동백과 공동체원들의 관계 발전은 사실 알게 모르게 서로를 향하여 지속되어온 무언의 관계 맺기의 시도에 대한 응답과 화답이다. 김치를 나누는 행위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려 늘 한 발 물러서던 동백과, 그런 동백을 챙기면서도 지역 토박이는 아닌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던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갱신된다. 까불이

---

34 미혼모로서 동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은 연민과 동정심, 그리고 남성을 유혹하거나 쉽게 마음을 받아주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 드라마 상에서 사람들은 점차 동백이 그러한 편견 모두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가면서도 미혼모라는 단순한 표상과 동백이라는 실제적 인물을 분리하여 대하지 못하는 복합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드라마 상에서 동백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뿐 아니라, 대사 없이 어떤 놀람과 불쾌를 동시에 표출하는 배우들의 표정에서 한층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에 의한 향미의 죽음으로 경찰서에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된 동백이 이웃 주민이자 필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준기의 엄마 찬숙과 나누는 다음 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찬숙 뭐 필구 말아 달라구? 애, 너 너무 이렇게 예의 차려도 정이 안  
가, 영? 필구랑 준기랑 죽고 못사는 거 이 동네가 다 아는데 어떻  
게 이제야 처음으로 나한테 애 말아 달라는 소릴 하? 그 소리를  
뭘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자빠졌어?

동백 그러면 우리 필구 좀 맡겨도 되는 거였어요?

찬숙 네가 필구를 맡겨야 나도 준기를 너한테 맡기고 계모임을 가지.  
사람이 말이여 서로 영기고 영? 염치없고 그래야지 정도 들고 그  
러는 거. 우리는 밥뿐만이 아니라 똥도 닦아줘!

17회 〈옹벤져스〉 중

처음으로 어렵게 필구를 부탁하려는 말을 꺼낸 동백에게 “밥뿐만이 아니라 똥도 닦아”준다는 찬숙의 말은 김치를 담가서 나눠먹고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행위와 같이 서로를 신경쓰고 보살피는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장골목이라는 특수한 공동체는 종렬의 말대로 마치 “씨족 사회”처럼 서로를 챙기는 것에 익숙한 공동체이지만, 낯선 이방인으로서 공동체에 진입한 동백을 대하던 그들의 배타적 태도는 분명 능숙한 돌봄공동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은 찬숙이 말했듯이 ‘예의’도, ‘염치’도 없이 서로에게 ‘영기는’ 돌봄 관계를 통해 좀 더 성숙한 돌봄의 공동체로서 동백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동백꽃」이 드라마 전반에 걸쳐 이런 돌봄의 행위들을 여성에게 맡겨진 성 역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시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물론 웅산이 매우 여성 중심적인 바닷가 마을로 설정된 데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돌봄의 주된 수행인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행위 모두가 전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이 드라마가 갖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실제로 웅산에서 남성들이 하는 돌봄의 행위는 로맨스를 끌고 가는 힘으로 묘사되는 동백에

대한 용식의 지지와 인정, 그리고 마지막 회의 동백 어머니 이송작전에 합심해서 참여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난다.

웅산의 지역 공동체가 동백을 향해 보여주던 양가적 태도는 동백이 가장 힘든 순간에 비로소 한 명의 공동체원으로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긍정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5회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동백의 아픈 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급박하게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던 마지막 회의 상황은 그동안 동백에게 야박하게 구는 듯이 보이던 웅산의 지역 공동체가 그 모습을 바꿔 분명한 돌봄의 공동체로서 시청자에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동백의 사적인 고난에 무심해보이고 나아가서는 동백을 핍박하기도 했던 계장골목의 지역 공동체는 동백이 감당하기 힘든 난관을 마주하자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그녀를 돕는다.

찬숙 죽이고 살리는 거야 하늘이 정하는 건디 뭐, 어떡하? 근데 말이  
여, 그 직전까지는 사람이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 [이하 내레이션]

변 소장 원래 대한민국이 한 다리 건너 형, 누나, 동생이고,  
규태 오지랖으로 굴러가는 민족이라고.  
용식 웅산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  
동백 이 이상한 나라 웅산에서는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렸고, 사람들의  
마음이 흥해를 갈랐다.  
(...)

용식 기적은 없다. 우리 속 영웅들의 합심. 소리 없이 차오르는 구세군.  
착한 사람들의 소소한 선의. 착실히 달려온 마리오의 동전 같은  
게 모여 기적처럼 보일 뿐.

20회 〈기적 같은 소리〉 중

이것이 돌봄자의 돌봄이 극단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록 극의 후반부에서 동백을 향한 까불이의

위협과 동백과 어머니의 갈등이 겹치지며 동백의 수난이 한층 더 강조되고 드라마의 서사 전개상 공동체의 동백을 향한 태도 변화가 대단히 극적인 것으로 비춰 지기는 하지만, 이는 동백이 자녀인 필구를 양육하며 처음으로 돌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자에 대한 돌봄을 처음 수행해나가는 공동체가 거쳐가는 성장의 과정에 더 가깝다. 공동체의 돌봄 역시 더 나은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 4.2 괜찮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병원’

「동백꽃」이 웅산이라는 소도시, 그러면서도 특히 계장 골목이라는 특정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면, 「사괘」은 바닷가 도시 성진시에 위치한 ‘괜찮은 병원’이라는 지역의 기능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다. 오주왕 원장이 이끄는 ‘괜찮은 병원’은 강태와 상태 형제 모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딛고 ‘괜찮아’지고, 그럼으로써 각자의 삶으로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강태와 상태는 돌봄자에서 돌봄대상자로 향하는 일방향적인 돌봄이 아닌,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인 오주왕 원장 개인이나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에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괜찮은 병원’이라는 장소를 중심축으로 하여 맺어진 공동체에서 기능하는 돌봄, 즉 이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작은 돌봄의 손길이 모여서 발생하는 돌봄인에 대한 돌봄의 힘을 통해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듯 8회에서 강태는 문영이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이러한 강태의 변화는 상태에게 서운함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변화를 촉발한다. 상태는 강태의 변화를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상태는 돌봄대상자로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관리하는 돌봄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돌봄자이자 유일한 가족인 동생에 대한 강력한 애정의 끈을 놓지 못한다. 강태가 문영과 단 둘이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게 된 상태는 병원 사람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던 과거의 갈등을 폭로한다. 이 과정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만 하던 강태의 감정—형에 대한 미안함과 억울함의 복합적인 마



음—역시 폭발하고, 강태는 형의 돌봄자에서 벗어나 문강태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포기하려 한다. 이때 오주왕 원장은 상태를 며칠 간 병원에서 돌보도록 결정하면서, 강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왕 2인 3각 해봤어? 왜 두 사람이 발 하나씩 끈으로 묶고 달리는 거. (...) 자네랑 형은 꼭 2인 3각 뛰는 거 같아.

강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주왕 아니,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빠듯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잘 잡아주면 절대 같이 안 자빠져. 악착같이 버텨 봐. 혹시 알아? 언젠가 형이 자네를 붙들어 줄지.

11회 <미운 오리새끼> 중

오주왕 원장의 이 같은 말을 통해 강태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돌봄의 호혜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강태가 상태의 생활 전반을 위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가 아닌 형과 동생이라는 형제 관계 내에서 돌봄은 결코 일방향적 돌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상태는 드라마 전반에서 자신이 강태의 형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는데, 이는 상태 역시 강태에 대한 일종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태의 형으로서의 책임 의식은 강태가 돌봄 관계의 호혜성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발휘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관계의 단계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먹을 것을 절대 나눠주지 않던 상태는 강태를 시내의 돈까스 집에 데려가 밥을 사주며, 자기 몫의 음식을 강태에게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 강태에게 용돈을 준다. 이와 같은 돌봄 관계의 발전은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의 관계가 지나치게 국한되거나 고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돌봄’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의존적으로만 고려되던 돌봄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돌봄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돌봄대상자 역시 한 사람의 공동체원으로서 공동체에 수용되도록 만든다.

「사괘」은 이렇듯 더욱 확장되고 발전된 돌봄 양상을 통해 돌봄대상자와 돌봄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돌봄은 강태와 상태의 공동체 진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동체의 돌봄자를 향한 돌봄, 즉 다차원적인 돌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후 상태는 자신이 돌봐져왔던 방식대로 다른 타인을 보살피며 사회성을 확장해나간다. 가령, 「사괘」 12회에서 전쟁 후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던 괜찮은 병원의 환자가 버스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상태는 강태가 늘 자신을 다독이던 방식으로 그를 감싸준다. 문영도 강태와 같이 자기 가족과 다름없이 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동생으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상태는 문영을 통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순덕이 상태와 문영이 저녁 식사를 고민하는 대화를 듣고 “진짜 가족 같다”고 말하자, 상태는 문영이 자기 형제들과 성도 다르고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가족 같지만 가족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이에 문영은 같은 호적에 오르는 게 아닌 ‘가족사진’을 찍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라 반박한다. “가족을 증명하는 건 호적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강태와 상태, 그리고 문영은 결혼식이나 다른 의례 없이, 한 장의 가족사진을 찍으며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강태 고문영, 나 누굴 지키고 보호하는 일 너무 지겹고, 지쳤어. 그러라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었어.

문영 근데?

강태 이제 그거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내 목표로 삼아 보려고.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생각해보니까 꽤 멋지고 근사한 일인 거 같아. 누구든 건들면 절대 가만 안 뉘. 뺏어 가면 찾을 때까지 쫓을 거야. 내가 지켜낼 거야, 꼭.

문영 그 가족에 나도 있어?

강태 가족사진을 찍었으면 가족이지.

13회 〈장화홍련의 아빠〉 중

가족사진을 찍은 직후 나누는 위의 대화는 「사관」이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지는 가족의 상상력을 가뿐히 뛰어넘어 돌봄 관계를 사유하는 탁월한 텍스트임을 드러낸다. “그러라고 태어나고,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돌봄자의 역할을 해 왔던 강태는 이제 문영과 상태, 그리고 강태가 제각각 독립성과 의존성을 새롭게 협상한 뒤 구성된 세 사람의 돌봄관계를 ‘가족’으로 선언하며,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사는 것이 “꽤 멋지고 근사한 일”인 것 같다고 말한다.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지고 개인들의 저항과 지지를 통과하면서 강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떠맡은 고립된 돌봄을 벗어나 자율적이고 행복한 돌봄의 관계로 나아간다. 드라마는 ‘가족사진’이라는 장치를 통해 새로 구축된 상태-강태-문영의 돌봄 관계를 다시금 가족의 이름으로 묶지만, 이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이나 이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같은 돌봄의 단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최근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형상화된 돌봄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가족과 젠더를 넘어선 돌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찾아보았다. 두 드라마는 어린 아이와 장애인을 돌보는 2인 가족의 사례를 통해, 정상가족의 틀 바깥에서 돌봄의 위기를 직면한 빈곤계층 돌봄자의 내적 갈등과 성장을 잘 보여주었다. 돌봄 제공의 사회적 체계와 돌봄의 공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돌봄자는 ‘가족’의 이름으로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립과 소진의 상황으로 몰린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급기야 온전한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한 채 돌봄대상자와의 관계마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주인공들은, 자신의 돌봄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특정한 개인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초대를 통해 들어가게 된 돌봄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돌봄관계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된다.

‘가족’과 ‘시장’에 돌봄을 떠맡기고 다양한 수준의 관계맺음을 발전시키기를 소홀히 해 온 기존의 돌봄 질서는 돌봄을 부담으로만 여겨 값싸게 외주화하거나 아예 돌봄을 기피하는 세태를 만들어냈다.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돌봄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제공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젠더화된 돌봄 체계는 팬데믹을 맞아 수많은 여성들의 자기착취적 초과노동과 충족되지 않은 돌봄 수요의 방치를 양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봄의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근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유급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만으로는 이 거대한 돌봄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두 드라마는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의 돌봄 관계뿐 아니라, 그들 각각과 그 관계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관계의 망들을 상상하고 재사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두 드라마의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서사는 돌봄의 실천과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가상으로나마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둔 이상적 사회를 경험하게 해 준다. 인간은 애초에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우리 자신이 관계적 존재로서 자신과 타자를 돌보는 것은 타인들이 나에게 제공한 돌봄과 돌봄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을 두 드라마는 웅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돌봄자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극히 공적인 돌봄 네트워크, 사회적인 돌봄 체계의 형성에 대한 요청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두 드라마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애초에 주인공들이 돌봄 책임을 맡게 된 것은 그들이 혈연가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백꽃 필 무렵」의 경우 아들에 대한 모성적 책임이 두드러진다. 젠더화된 돌봄에 대한 비판의식은 드라마 텍스트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 않는다. 웅산 계장골목의 모든 실질적 돌봄관계는 여성들에 의해 구축된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가 황용식인데, 낭만적 사랑을 매개로 돌봄자인 동백을 돌보고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용식의 직업은 공교롭게도 지구대 경찰관이다. 경찰인 용식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주요 과제, 즉 전모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드라마 초반부터 맥거핀처럼 반복되는 ‘새끼를 낳은 영심이네 개’ 문제와 연쇄살인범 까불이에 대한 추적은, 용식을 사소한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돌봄에서 범죄자로부터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부장적 보호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책임지는 존재로 재현한다. 이런 예외적이고 특별한 인물 설정을 통해 용식은 완전히 젠더화된 돌봄 공동체인 계장골목에서 유일한 ‘남성’ 돌봄자로 존재한다.

돌봄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동백꽃」의 접근 역시 새롭다기보다는 복고적인데, 이 모든 서사가 애초에 동백을 보육원에 맡기고 떠나버렸던 동백의 어머

니가 돌아와 용식과 결혼한 동백 및 그들의 아들딸로 구성된 핵가족과 함께 살게 됨으로써 ‘정상가족’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맨스와 스릴러를 결합한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돌봄과 돌봄관계를 천착한 「동백꽃」의 성취는, ‘가족’과 모자관계의 돌봄을 고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 위치 지웠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이지만, 돌봄의 젠더화를 문제 삼지 않고 모성적 돌봄을 자연화하며 돌봄의 재가족화를 이상화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보수적인, 이중적인 성격을 띠다고 하겠다.

「사괘」이 돌봄의 젠더화와 모성을 다루는 방식은 훨씬 더 진보적이다. 가족을 돌보는 주인공은 남성이며, 유급돌봄노동에 종사한다. 일반적으로 형제 관계에서 동생에게 형에 대한 돌봄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사괘」의 경우 지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설정을 통해 일급 살 위인 형 상태에 대한 강태의 돌봄 책임을 시청자에게 설득했다. 성진시의 경우 ‘괜찮은 병원’의 오원장이 주로 해결책 제시와 정신적 격려를, 하숙집 주인이자 병원 식당 주방장인 순덕이 형제와 관련자들을 거두어 먹이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가족 내 부모의 젠더 분업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강태의 절친 재수나 문영의 출판사 사장 상인, 괜찮은 병원의 보호사 오차용 등 캐릭터 설정상 또는 직업상 돌봄의 역할을 맡는 남성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순덕 이외에는 모성적 돌봄의 스테레오타입에 들어맞는 여성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탈젠더화된 배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드라마의 메인 빌런이 정체를 숨기고 수간호사로 일하던 고문영의 친모이고, 그녀가 상태·강태 형제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설정은 모성적 돌봄에 대한 그 어떤 통념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전복적 모성의 형상화다. ‘가족사진’의 모티브를 통해 돌봄의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복고적 향수를 비틀면서, 동시에 일차적인 돌봄관계로서 준가족적 생활단위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인하지 않는 면은 영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백꽃」과 「사괘」은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분명하게 다른 드라마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 돌봄 체계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함의에 둘러 담은 점,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팝진하게 보여주고 돌봄자의 부담이나 피해가 아닌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보여준 점 등은 공통적이지만, 모성과 젠더에 대한 상상력만큼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만 두

드라마를 견주어 살피면서, 재현된 형상을 통해서 실재하는 돌봄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이 드라마 텍스트가 시청자에게 ‘돌봄’이라는 개념과 언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백꽃」과 「사관」의 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의 일들을 돌봄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돌봄의 공동체가 판타지라 불릴 만큼 이상화된 공동체로서 시청자들로부터 그 실제성을 의심받는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더 케어 콜렉티브가 제시한 ‘난잡한 돌봄’의 공동체 건설이 여전히 현실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드라마에서 읽은 상상력을 우리의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은 여전히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동백꽃 필 무렵」(총20부작), 임상춘 극본, 차영훈 연출, KBS2TV, 2019.09.18.  
~2019.11.21.
- 「사이코지만 괜찮아」(총16부작), 조용 극본, 박신우 연출, tvN, 2020.06.20.  
~2020.08.09.

### 단행본

-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 길-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방법론』, 박이정, 2019, 55쪽.
- 더 케어 콜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 선언』, 니케북스, 2021, 29-111쪽.
-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 70-72쪽.
- 사라 러딕,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39-388쪽.

에바 페더 키티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  
존에 관한 에세이』, 박영사, 2016, 1-209쪽.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24쪽.

캐럴 길리건,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63-404쪽.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아카데  
미, 2009, 142쪽.

Joan Williams,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1-276.

Nancy Folbre, *Who Pays for the Kids?: Gender and the Structure of Constraint*,  
London: Routledge, 1994, pp.1-262.

## 논문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2)-텔레비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  
타난 연결과 의존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71권. 33-82쪽.

김정은·조태홍,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5, 181-  
229쪽.

김현미,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제13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 41-77쪽.

문현아, 「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정진주 외 공저,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한울, 2012, 21쪽.

박고은·김고은,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  
는가: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  
71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83-124쪽.

안숙영,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제  
2호, 한국여성학회, 2017, 107-136쪽.

전기택·배진경,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이슈브  
리프』 제58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1-9쪽.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가족임금 그 다음: 후-산업시대에 대한 사고실험」,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적의 역사』, 돌베개, 2020, 157-192쪽.

로라 발보, 한국여성개발원 역, 「조각보 이불: 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여성학의 시각」, 앤 쏘우스터 사순 편저,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1989, 37-62쪽.

Carole Pateman,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1989, pp.179-209.

Joan Acker, “Hierarchies, Jobs, Bodies: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4(2), 1990, pp.139-158.

Joan C. Tronto and Berenice Fisher,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Abel & M. Nelson eds., *Circle of Care*, Albany: SUNY Press, 1990, p.40.

#### 기타자료

박병일, 「종일 자폐 딸 향해 ‘안돼’…코로나가 만든 돌봄 감옥」, 『SBS 8 뉴스』, 2020.7.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9678&plink=ORI&coop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9678&plink=ORI&cooper)>, 검색일: 2021.11.14.

채혜선, 「아이 휴교, 남편은 재택근무… 코로나 시대에 주부들 ‘삼시세끼 가장 큰 걱정’」, 『중앙일보』, 2020.03.05., <<https://news.joins.com/article/23722470>>, 검색일: 2021.11.14.

#### Abstract

Imagining Caring Relationships beyond Family and Gender  
: An Analysis of the K-drama *Camellia Blooms* and *It's Okay not to be Okay*

Kim Mi-La·Bae Eunkyung

This article examines aspects of caring embodied in the recent dramas *Camellia Blooms*



and *It's Okay not to be Okay* in an attempt to conceptualize relationships of care that transcend family and gender. The COVID-19 pandemic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are in a paradoxical form. The care crisis and care gaps have deepened due to the cessation of the public care system, which transferred the burden of caring for others onto the “family.” In South Korea, temporary solutions to this care crisis have been reached via the self-exploitative overtime work of women. This study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properly positioning and restructuring car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form of “essential labor,” in a sustainable manner. It also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 current paradigm, which naturalizes the concept of the “normal family” and care work responsibilities through a gendered division of labor while also obscuring care work and care workers.

*Camellia Blooms* and *It's Okay not to be Okay* both feature main characters who are caregivers belonging to lower class families of two, each a child and a single mother, and a younger brother and older brother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se main characters, the two dramas demonstrate the crisis of care experienced by poor individuals who exist outside of the frame of the “normal family.” The dramas also highlight the difficulties they face as caregivers. Both dramas also include romance narratives that follow the process of overcoming crisis and growing through building caring relationships and communities. In the absence of a well-established social care system, the protagonists of the two dramas, who are poor and helpless caregivers, struggle and are driven into isolation while fulfilling the care responsibilities imposed on them in the name of “family.” Yet,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m to provide proper care to the care recipients, and it only harms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are recipients.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two main characters at the beginning of the dramas are intertwined with experiences of the severe care gap by people who have lived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normal family” in Korean society. As they experience caring relationships with specific individuals who acknowledge their care needs, support them, and become included in caring communities via the invitation of those individuals, they gradually overcome obstacles and become hopeful that they can begin new lives. The characters and their narratives in the dramas allow viewers to virtually experience an ideal society based on an “ethics of care” by demonstrating the practice and value of caring. This article attempts to interpret the two dramas as texts that allow one to imagine and conceptualize a form of defamilialized, degendered, and demarketized care which is demanded by today’s care discourse while also examining remaining real-world limitations to clarify the current state of a conception of care that transcends family and gender.

Key words: *Camellia Blooms*, *It's Okay not to be Okay*, COVID-19 pandemic, ethics of care, isolated care, caring community, community, care.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